

6/14(화) 시편 51-55편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참회시]

51편은 다윗의 참회시로 알려져 있습니다(삼하11-12 참고).

다윗이 실제 죄를 범한 대상은 뱃세바와 남편 우리아인데

왜 <주께만> 범죄 했다고 표현했을까요? (51:4)

구약에서 죄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죄로 그가 속한 공동체 역시 오염되고 상처를 입습니다.

다윗의 죄 또한 왕실과 국가 전체에 엄청난 재난을 불러온 바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자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주님의 말씀과 판단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시인은 <특정 죄>뿐 아니라 <죄 된 실존 피흘린(히, 담임)> 자체를

구원해 달라고 간청합니다(51:5,10,14). 담임 : 죄를 일컫는 포괄적 용어).

이스라엘의 멸망한 것도 특정 시기, 몇몇 죄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어긋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죄인>인 것과 그 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52:1-5).

결국 회개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의 문제 이전에

<나는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의 문제입니다(51:5). 제임스 L 메이스

시인은 단순히 용서를 넘어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을 구합니다(51:10).

하나님을 신뢰하여 신실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즉, 자신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78:37, 112:6-7, 갤36:26, 고후5:17 참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51:17).

시인은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 낮고 겸비한 자세로 머리를 숙입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52:7-8).

나는 내 죄의 실체와 깊이를 깨닫고 있습니까?

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나의 죄와 그 깊이를 깨닫습니까?

② 나의 죄로 인해 공동체가 오염되고 상처 입은 것은 아닙니까?

시편2권 (42-72편)

편	유형	편	유형
42	개인 탄식시	58	공동체 탄식시
43	개인 탄식시	59	개인 탄식시
44	공동체 탄식시	60	공동체 탄식시
45	왕조시편	61	개인 탄식시
46	시온의 노래	62	신뢰의 노래
47	찬양시(제왕 즉위)	63	신뢰의 노래(개인 탄식시)
48	시온의 노래	64	개인 탄식시
49	지혜시편	65	공동체 감사시편(찬양시)
50	계약갱신 제의문	66	찬양시, 개인 감사시편
51	개인 탄식시(참회)	67	감사의 공동체 노래(찬양시)
52	개인 탄식시(혼합)	68	시온 제의기도문
53	개인 탄식시(=14)	69	개인 탄식시
54	개인 탄식시	70	개인 탄식시(=40:13-17)
55	개인 탄식시	71	개인 탄식시
56	개인 탄식시	72	왕조시편
57	개인 탄식시		